

www.sjsc.or.kr



발달장애 사회성 발달 전문기관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동가Vol. 6 2016 여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갑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2동 28-1)
TEL 02.448.3302 FAX 02.448.6022

Mission & Vision

미션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운영목표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비전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선도하는 대표기관

교육목표

발달연령별 프로그램

수행수준별 프로그램

발달장애 이용자의 자립능력 강화

Index

- 3 [시설장 인사말] 장애아빠도 천사.../추석호 센터장
- 4 [2016년 상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사회성증진반
재활심리치료
- 14 [지역사회네트워크협력사업] 가족지원사업(체험여행)
지역사회네트워크협력사업(농구교실)
- 16 [후원사업] 쌈지길 그림기리기 행사 및 전시회 <꿈담>
행복한 공연나눔<한전아트센터>
행복놀이프로그램<서울상상나라>
겨울 남이섬 출사여행<남이섬>
- 19 [부모님간담회, 기관협약체결, 직원교육]
- 20 [10주년 직원워크샵, 운영위원회회의]
- 21 [Essay] 현우의 센터 적응기~~/김소진(윤현우어머니)
사회적응지원센터를 떠나며/강경임(박현우어머니)
- 23 [자원봉사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 25 [자원봉사 이야기] 대학생봉사자 손경현
고등학교봉사자 백종민
고등학교봉사자 오민혜
- 28 [2016년 상반기 이용현황]
- 31 [2016년 1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34 [2016년 상반기 운영 결산내역]
- 35 [꿈에그린 도서관 소식]

동가童歌

아이들웃음소리

2016 여름 통권 6호

제 6 호 발행
발 행 처 2016년 8월 1일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마천2동 28-1) Tel.02-448-3302
발 행 인 추석호
편 집 인 홍완기
자료정리 주민성, 이정순, 소연자, 강은주, 최보윤, 임정택, 손승연, 김우리
편집/인쇄 주식회사 디자인커뮤니케이션 1588-4654 www.toprint.co.kr

장애 아파도 천사~~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힘이 듭니다.
가정에 충실치 못하고 직장에서도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저 양반이 안 그랬는데”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저녁약속이나 하지 않을까?
주말에는 접대, 경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마음의 짐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기 힘들며,
뒤에서 자신감 없이 끌려다니는 아빠들의 모습은 날개 부러진 삶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가장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색없이 힘든 마음의 노력을 합니다.

가족입니다.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족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투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빠에게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장 **추석호**





2016년 상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2016년 상반기 사회적응운동 활동사진입니다.~
가끔은 힘들어 하지만 언제나 열심히 하는 아이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회적응운동 4단계외부활동 눈썰매장

1월 22일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눈썰매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스포츠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사회적응운동 4단계 친구들이 겨울방학이 되면 기대하는 눈썰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을 하여, 눈썰매장에서 안전사고예비를 위한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설명 후 준비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설원 위에서 썰매를 타고서 재미있게 눈썰매도 타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사회적응운동 4단계외부활동 탁구장

2월 19일 26일 3월 4일 총 3회 기관 주변에 위치한 원탁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종명 탁구강사님의 지도하에 사회적응운동 4단계 수업에서 배워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여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탁구의 역사와 경기 규칙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응운동
FOCUS

체육관 60바퀴를 달리고 뒤편 일으키기 100회해도 끄떡없는 멋진 '월수 5시'반을 소개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5명의 친구들로 한 반을 이뤄, 강도 높은 운동에도 대단한 승부욕을 보이며 참여하는 친구들이에요.
또 레크리움 활동 시간에 동생들을 챙겨주며 형으로서 든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응운동
5단계
축구교실
참가자 선발

참가자 선발 2016.02.25(목)
프로그램 기간 2016.03.05~2016.12.17
운영시간 토요일, 10:00~12:00
25명의 대기자 중 17명 선발

매주 토요일 10시 17명의 축구 선수들이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8월에 열리는 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운동
5단계
축구교실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재미있게 축구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공도 이제는 한 몸처럼 친하게~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게요.





사회성증진반

사회성증진반 졸업식

2월 26일(금) 사회성증진반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함께 졸업생들의 지난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아이들이 1년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추경호 센터장님의 인사와 함께 졸업생과 부모님의 편지낭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 선생님에 대한 감사, 동생들에 대한 응원, 아쉬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함께 모인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간이었네요.



졸업장 수여식, 단체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졸업식이 마무리 되었네요.
신입생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해주셔서 앞으로 함께 할 사회성증진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함께 지하 1층 굿윌스튜디오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까스로 준비해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내길 응원할게! ^^

2016 3회 전국장애인 출사대회

Dream Shot



지난 6월 24일 제3회 전국 장애인 출사대회(Dream Shot)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30여 명이 참여하였고, 본 센터에서는 10명의 친구들이 출전하여 4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친구들의 작품은 7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여러 곳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여한 친구들의 작품은 센터 전시행사에 전시됩니다.



시상 및 전시일정 안내

시상 일시 7월 20일(수) 11:00
시상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전시 일정 1차 7월 9일(토) ~ 7월10일(일) 보라매공원
2차 7월11일(월) ~ 7월17일(일) 청계천(광고)갤러리
3차 7월18일(월) ~ 7월24일(일)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수상 작품 안내



청소년부문 드림상 정경구



청소년부문 남부상 박수빈



청소년부문 반짝상 임세현



복지관 30주년 특별부문 반짝상 박수빈

센터 전시 일정

장소 송파도서관 내 다솜갤러리
일정 7월 22일(금) ~ 7월 29일(금) 10시~18시

방이생태 학습관

5월 18일 도심속 습지 방이생태학습관에 다녀왔습니다. 전문 생태 해설사 설명을 듣고 탐험 활동!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게 설명해주셔서 탐험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누에, 미꾸라지, 애기뿔뚝, 아기사라귀, 스노우볼벌레, 산달기나무, 아기개미, 올챙이, 애벌레, 벌, 올챙이 등을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어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누에 실 뽑기 체험도 하고, 애기뿔뚝로 팔찌와 나비 부채도 만 들었어요. 평소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의달 맞이 가족그림 그리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그림그리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사진을 보며 친구들에게 나의 소중한 가족을 소개하고,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네요. 가족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사진을 보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예쁘게 색칠해 보았어요. 사진속 그 시간, 그 추억이 생각나는지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네요.

사진에 대한 설명도 적어보고 "예뻐요, 웃어요, 따뜻한 햇빛, 좋아요, 행복해요" 가족을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렇게 완성된 가족그림을 "드림틀-고옥 안아주고 싶은 우리 가족" 행사에도 보냈어요. 가족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해졌을거라 믿어요.



재활심리치료

HELLO MUSEUM 체험전시 관람

친구-관계의 발달전진

진행기간 : 2016년 1월 13일(수)
참가인원 : 재활심리치료 이용자 6명

미술 작품을 통해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소중한 시간! 친구가 짙는 외로움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표현한 작가의 마음도 느껴보고, 다양성을 지닌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직접 작품을 만져보고 써보고 그려보는 체험전시장. 우리에게선 안성맞춤!!!



성교육 프로그램

NO.1 세종KB 창의나눔봉사단
"성생님" 성교육프로그램



진행기간
1회기 - 2016년 1월 08일(금)
2회기 - 2016년 1월 11일(월)

참가인원
발달장애이용자 11명

세종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퀴즈와 노래, 동영상 등 재미있는 놀이형태로 배워본 성의 세계!!! 흥미진진하네요~.



NO.2 소중한 나의 몸!!!



진행기간
2016년 5월 21일(토)

참가인원
발달장애이용자 7명

발달장애 성교육 전문강사 선생님을 초청하여 소수정원으로 진행된 성교육시간.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까지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NO.3 한국발달 장애인 가족 연구소
성교육 인형극 [너랑나랑]

진행기간
2016년 6월 18일(토)

참가인원
발달장애이용자 가족 23명



성인 발달장애인 강사분이 성과 관련된 예절에 대해 인형극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성예절에 대해 발달장애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쉽게 전달이 가능하여 너무나 유익하였어요. 인형극에 사용된 인형들을 직접 만져보고 인형을 조작해볼 수 있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도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았던 성교육시간이었어요.

부모멘토링 프로그램

장애아동 형제자매를 위한
"엄마는 너도 똑같이 사랑한다."



진행기간 : 2016년 4월 25일(월)
참가인원 : 부모 8명

장애형제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그동안의 교육과 달리 비장애 형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새기며 오롯이 비장애 형제자매의 독립적 주체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좋았던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 부모님들께서도 4.88점으로 매우 만족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많은 질문을 토대로 답변함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체험여행

체험여행은 장애아동에게는 오감능력 향상과 사회성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형제애 및 가족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장소 : 경기도 장흥 송암전문대
행사일 : 2016년 4월 30일(토)
참가인원 : 37명
체험프로그램 : 에어로켓발사, 플라네타리움 관람, 야광성도만들기, 별고리만들기, 로봇댄스 관람, 챌린저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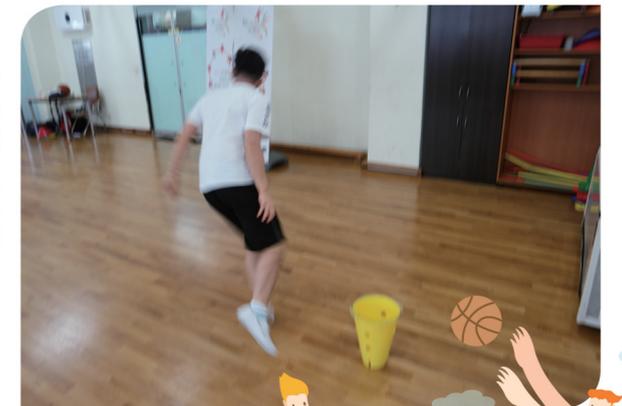
장소 : 경기도 용인 청계목장
행사일 : 2016년 5월 28일(토)
참가인원 : 40명
체험프로그램 : 치즈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한우건초주기, 송아지우유주기, 소젖짜기, 트랙터타기, 동물원관람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사업

발달장애 청소년 농구교실 참가자 선발

프로그램 : 발달장애 청소년 농구교실
운영기간 : 2016.07.09.(토)~12.17(토) / 20회기
운영시간 : 토요일, 14:00~16:00
인 원 : 13명





후원 사업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

4월 15일(금), 16일(토)

삼지길과 사회성기업 (주)꿈담이 주최하는

2016년 가정의달 맞이 "그림그리기 행사"에 센터에서는 총 28명의 친구들이 참여하여, 동양화가 성영록 작가님의 지도로 협동그림그리기, 텀블러, 부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주최측에서 제공해주신 샌드위치, 음료를 먹으면서 활동을 마무리 했어요. 열심히 활동해서 간식이 더~욱 맛있었네요. 따뜻한 봄날,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해주신 "삼지길과 꿈담" 감사드립니다.



완성된 작품은 5월 한달간 인사동 삼지길 중앙광장과 계단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전시 작품 작가 28명
 김민건, 김민서, 김성혁, 김재원, 두건우,
 민현기, 박세영, 박수빈, 박현우, 손창오,
 심규원, 양승호, 염우진, 예승재, 우예준,
 유하늘, 윤승수, 윤정원, 이건호, 이민엽,
 이승준, 임세현, 장 훈, 정경구, 정예원,
 지연우, 최윤서, 최재혁 ♡



※ 앞으로도 미술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전아트센터 행복한 공연나눔

한전아트센터 <행복한 공연나눔> 초청을 받아 1월 13일 "번개맨과 비밀의 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내내 신나서 영당을 들쭉이는 아이들~ "번개~파워!"를 외치며 즐겁게 관람하였습니다.



서울상상나라 행복놀이 프로그램

4월 20일 서울상상나라 <행복놀이 프로그램>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 만들기' 미술워크샵에 참여하고 공간, 예술, 자연, 신체, 문화,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놀이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날만큼 내가 최고의 요리사, 수의사, 조경사, 만화가, 모델~ 맘 흘러가며 놀이를 즐긴 아이들의 모습 보이시죠?





후원 사업

하안동화세상
겨울남이섬
출사여행



2월 18일(목) <하안 동화세상, 겨울 남이섬 출사여행> 이벤트에 선정되어
입장료와 맛있는 점심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다녀왔습니다.
남이섬 속에 펼쳐진 겨울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상의예술포육을 진행해주셨던 프로젝트룩 선생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어요.
오후에는 도자기 공예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 유리공예도 구경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볼썩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 @ @)

좋은 추억을 선사해주신 남이섬 관계자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응운동 부모님간담회

진행기간 : 2016.03.14.(월)~03.18(금)
목적 : 사회적응운동 1년 운영상황 보고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설명 및 학부모 욕구 파악
목 표 : 학부모의 욕구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참고
참석인원 : 134명
장 소 : 4층 회의실



기관협약 체결

협약기관 : 한국 스포츠 교육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대 표 : 김광원 / 前 안양KGC(인삼공사) 프로농구단
내 용 : 발달장애 청소년 농구교실 지원 협약



직원 교육

교육명 : 소화기 사용 및 응급상황 대피훈련
교육일시 : 2016년 1월 28일(목) 10:00~12:00
참여인원 : 총 50명(센터 10명, 굿월 40명)
장 소 : 센터





10주년 기념 직원 워크샵

일 시 : 2016년 4월 8일(금) ~9일(토)

장 소 : 제주도

참석인원 : 센터직원 9명



운영위원회의

1차 회의

회의일시: 2016년 3월 8일(화)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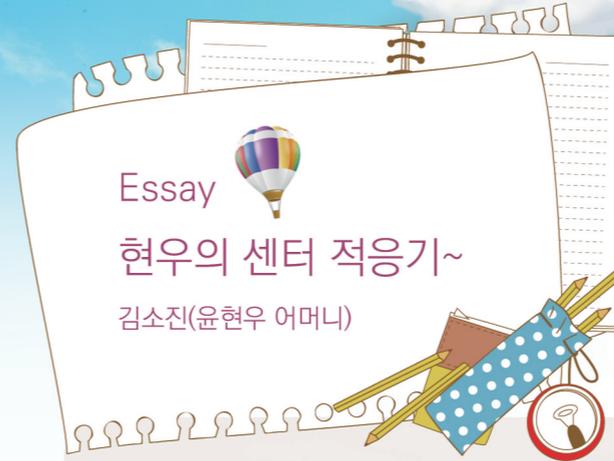
회의내용 : 2015년 사업 결과보고
2016년 1차 추경예산 심의
2016년 주요사업 검토



2차회의

회의일시: 2016년 6월21일(화) 14:00

회의내용: 2016년 상반기 사업보고
하반기 사업검토
2016년 2차 추경예산 보고
직원승진보고



Essay

현우의 센터 적응기~

김소진(윤현우 어머니)



지적장애인 현우가 6살 무렵 주변에서 운동을 권유하기에 알아보던 중 지금의 사회적응센터를 알게 되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니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기가 긴 시간을 대기 한 후 다닐 수 있었다.

현재 이용한지 일 년 반이 지난 상태로 요즘만 같으면 선생님도, 나도 현우도 할 만한 즐길만한 시간인 듯하다. 아이의 그날그날 기분,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현우의 특성상 많이 움직이는 활동 자체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며 빨리 포기하는 특성이 있어 새로운 동작이나 동작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투정부리기와 거짓울음, 때를 쓰는 등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다.

밖에서 듣고 있다 보면 저러다 다른 아이들 수업까지 방해한다고 쫓겨나는 건 아닌지 조바심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운동 강도를 조절해주거나 아이를 다독여주시는 등의 선생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직까지 무사히 잘 다니고 있다. 사실 일 년 반 동안 엄청난 발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현우가 센터에 와서 나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나 싶다. 선생님 지시에 맞추어 규칙에 따르는 모습 또한 배운 한가지이고 현우가 아니 어찌면 내가 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 눈치 덜 보고 잠깐이라도 뛰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노출 시킬 수 있음에 성공적이고 감사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7월 들어 옥상에 아담한 물놀이 장을 설치해주셔서 센터에 오는 즐거움을 배로 늘려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현우가 오고 있는데 설치해주시고 같이 아이들과 활동해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줄넘기도 줄 따로, 발 따로 활동하지만, 그 긴 시간동안 방법만 배웠다고 슬퍼만 하지 않으려 한다.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엔 느린 속도라도 단 한번이라도 펄쩍 줄넘기를 뭇 날을 기대하며 계속 열심히 센터를 이용 할 것이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쁘고 다행이고 감사하다.

센터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ssay

사회적응지원센터를 떠나며...

강경임(박현우어머니)



돌이켜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기에 매년 기다려지던 봄이 유독 올해엔 더디게 오길 바라게 되네요.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난 기억들이 많아서인지 마치 친정 같았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두려움, 여러 감정들이 복합쳐 오르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3월이 와도 늘 그래왔듯 화요일, 목요일이 되면 이 곳에 와야 될 것만 같은 마음에 아쉬움을 더합니다.

중등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 둘 손으로 꼽아보게 되고, 되뇌며 웃음 짓게 됩니다.

지금의 현우는 혼자서 라면 끓이기, 계란후라이 부치기 등 이제 혼자서도 식사를 해결하고 식구들까지 챙길 수 있는 청소년으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사회성증진반에서 바리스타 수업과 볼링수업 그리고 사진수업에 사진전까지 다른 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다양한 체험과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아이를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일 때를 떠올려보기도 합니다.

매주 이틀을 어김없이 사회적응센터를 왔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소통하며 성장하고, 저 또한 몇 년간 긴 시간을 사회적응센터를 오가며 엄마들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초등부터 중등까지 사회적응센터와 함께 성장했던 모든 아들과 딸들 그리고 엄마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이젠 추억으로 고이 간직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법률자문봉사를 맡아 주시는 신준우 변호사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월 상담자 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신준우변호사님 덕분에 센터에는 고민 쌓일 날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이 있으신가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를 찾아주세요.
신준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사회성증진반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는 김정자선생님! 오늘은 아이들과 인사동 삼지김 나들이 갑니다. 지하철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 까지 봉사활동 해 주신 양성욱선생님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가장 특별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더욱 식색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3년째 센터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규철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한 가족 같이 느껴져서 안보면 서운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발고 에너지 넘치는 오만혜 학생봉사자입니다.
처음 센터 방문했을 때 만해도 제가 도움이 될까요?
하고 걱정하더니 어느새 아이들과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이네요.
아름다운 봉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고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센터를 찾은 전종훈 학생봉사자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애정으로 다가가 주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진지하고 바른 모습의 훈남 선생님 손경현 자원봉사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는 선생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아이들을 보면서 전공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음악치론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손찬양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온 이가현 학생봉사자입니다.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다녀도 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 감사합니다. ^^

아이들에게 바리스타교육, 쿠키 굽기를 가르쳐 주셨던 금인선 선생님과 사회성증진반 아이들과 2년 동안 함께 해 주셨던 원미한 선생님입니다. 두분 선생님 모두 아이들 일이라면 열 일제치고 달려오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언제나 적극적으로 환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경정원 학생봉사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귀엽다고 방학 때 마다 봉사 약속 해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아이들을 통해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학생봉사자 손경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군 전역하고 난 뒤, 친구의 권유로 경기도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특수아동들을 보며,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짹 하고 지르는 아이도 있고, 자기 머리를 때리는 아이, 저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첫 날, 저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할지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람을 느꼈고, 좀 더 가까운, 서울에 있는 특수아동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를 찾게 되었지만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라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특수아동 교육시설은 이곳이 유일하였기에 연락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특수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 날은 큰 부담 없이 아이들과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 봉사활동에서는 한 반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지냈기 때문에, 더욱 유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 시간마다 다른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았고,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들인지도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이름과 성격을 연결 지어 기억하다 보니 하나씩 아이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만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도,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가 뛰는 것을 좋아하는지, 누가 줄넘기를 좋아하는지, 점프를 시키려면 어떻게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아이들도 저를 신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저의 손을 잡는다거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포옹해주는 등의 행동들을 통해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이었지만,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 아이들을 통해 감동받고, 보람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센터에서 놀다 가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봉사자 백종민

중학교 때까지 의미 없는 시간 채우기 봉사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에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센터에 오던 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걸어오는데 센터에 다가올수록 걱정이 돼서 그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진 않으실까? 많은 걱정과 궁금증으로 센터를 들어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난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느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천진난만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나의 말을 잘 따라 주었고, 내민 손을 잘 잡아 주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놓으려고 하면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늘 학생이긴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선생님이로 따르는 것 같아서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4주째 되던 날 아이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물놀이를 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풀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같이 뒹굴면서 노는데 모두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미끄럼틀 위에 올려달라고 끊임없이 몰려와서 팔이 빠질 듯 아팠지만 아이들의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옷이 땀과 물에 흠뻑 젖어도 힘든 줄 모르고 즐겁기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방학 활동을 마치고 겨울 방학이 되어서 센터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저를 기억하시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로 인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 기쁘고 내성적인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는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회적응활동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교육해서 조금씩 높은 단계 활동에 도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더 많아 저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센터에서 놀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봉사자 오민혜

센터에 처음 봉사활동을 오던 날에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줄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잘 도와 줄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걱정에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던 기억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먼저 인사도 해주고 제가 하는 말에 잘 따라주어서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이 러닝머신을 하다가 뛰쳐나가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다가 울면서 따라주지 않을 때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속상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까 싶어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제가 원망스럽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의 맘을 이해하고 잘 타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즐거워서 웃으면 저도 어느새 미소 지으면서 같이 웃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줄넘기나 공 던지기를 할 때에도 처음엔 못하다 어느새 잘하게 되면 괜히 제가 더 부듯해지고 아이들이 대견 해 보여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먼저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전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먹는 것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서도 간식을 먹을 때 자신의 간식을 꺼내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특히 눈썰매장에 갔던 날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눈썰매장으로 가던 날 아이들이 지하철과 눈썰매장에서 선생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질서도 잘 지켜서 어떠한 사고 없이 다녀왔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열 명이 넘는 인원이 어딘가 놀러 간다면 두 세 명은 사고를 쳐서 다치거나 길을 잃어 미야방송을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실 센터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조금 떨어져서 걷고 모르는 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예전의 저 처럼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제대로 봐주지도 않으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예전의 저와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학생보조교사지만 계속 노력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용현황

사업실적보고 2016년 상반기

사업분류	구분	인원(명)		대비(%)
		계획	실적	
사회적응지원사업	장애	22,299	12,221	55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장애	1,852	986	53
	비장애	463	156	34
운영지원사업	비장애	72	56	78
장애		24,151	13,207	55
비장애		535	212	40
합계		24,686	13,419	54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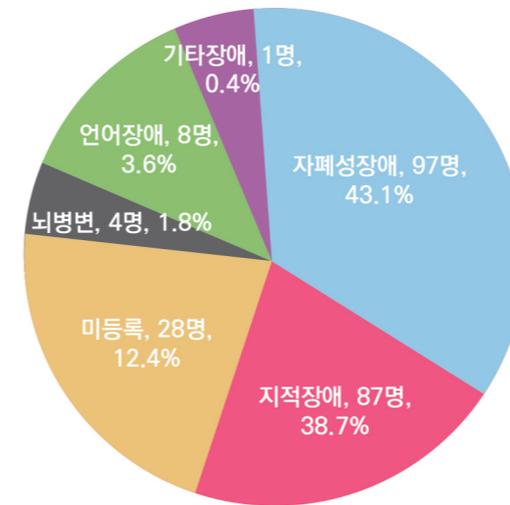
연도	월 등록인원			년 이용인원		
	장애	비장애	소계	장애	비장애	소계
2016 상반기	215	4	219	13,207	212	13,419



이용현황

2016 상반기 장애유형별 이용자 현황

전체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미등록	기타장애
100%	43.1%	38.7%	12.4%	5.8%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 뇌병변
- 언어장애
- 기타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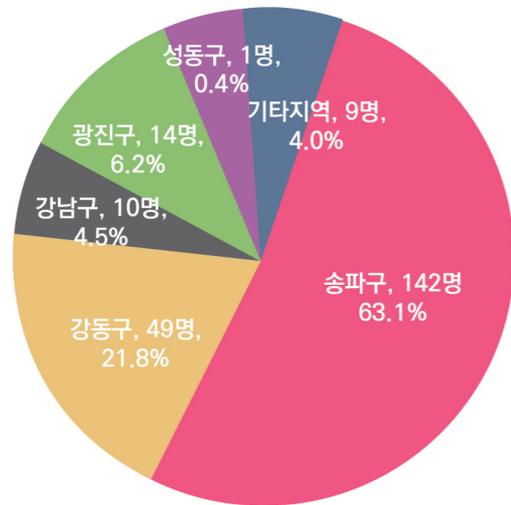
장애유형	2016. 06
	225명
지적장애	87명
자폐성장애	97명
미등록	28명
뇌병변	4명
언어장애	8명
기타장애	1명



이용현황

2016 상반기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

전체	송파	강동	강남	광진	기타
100%	63.1%	21.8%	4.5%	6.2%	4.4%



- 강동구
- 송파구
- 광진구
- 강남구
- 성동구
- 기타지역

거주지	2016. 06
	225명
강동구	49명
송파구	142명
광진구	14명
강남구	10명
성동구	1명
기타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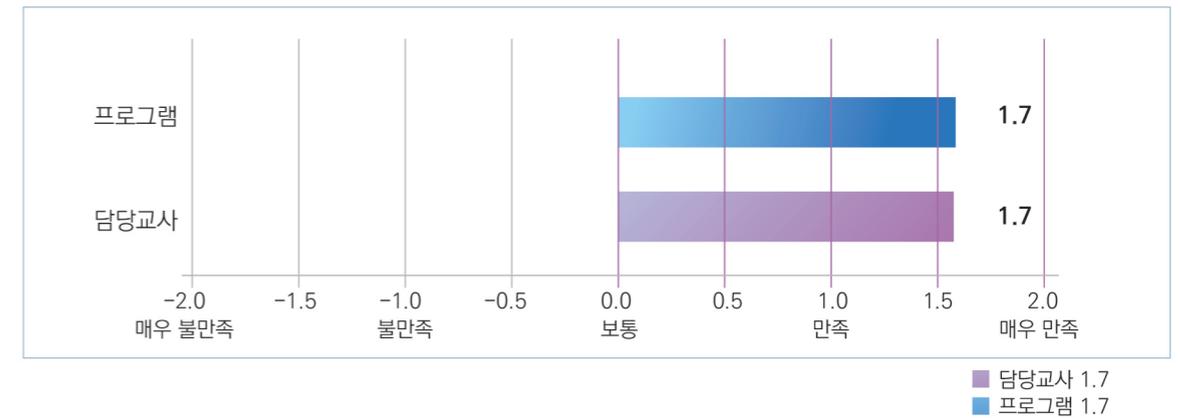
2016년 1차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사회적응지원사업 만족도 결과

영역	만족도
프로그램	1.7점
담당교사	1.7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사회적응지원사업 만족도 (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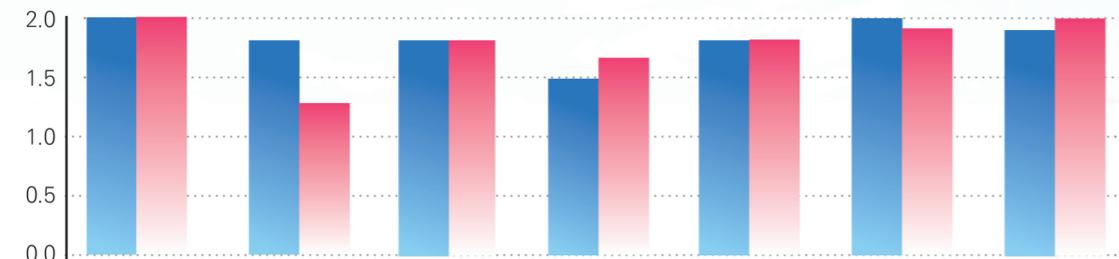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사회적응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센터시설/환경, 행정팀 직원 만족도

세부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사회적응 운동 0단계	사회적응 운동 1단계	사회적응 운동 2단계	사회적응 운동 3단계	사회적응 운동 4단계	사회성증진반	재활심리치료
담당교사	2.0	1.7	1.7	1.5	1.8	2.0	1.9
프로그램	2.0	1.4	1.7	1.6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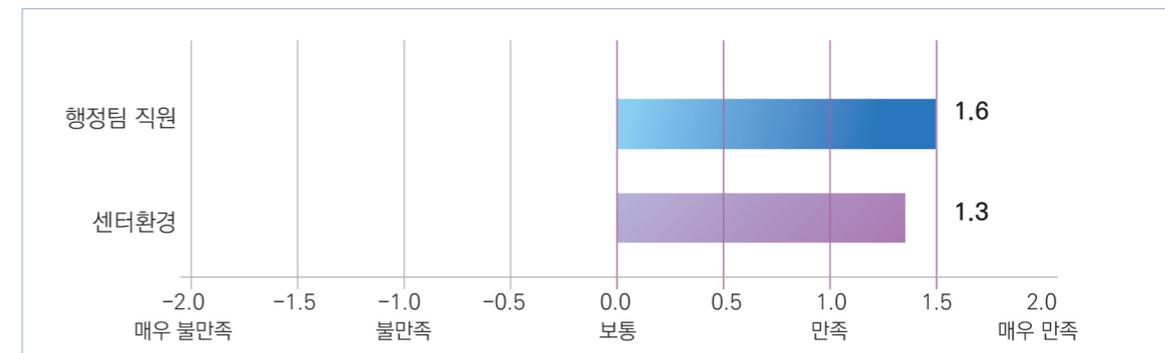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센터시설/환경, 행정팀 직원 만족도 결과

영역	만족도
센터환경	1.3점
행정팀 직원	1.6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1점)
 보통 (0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2점)

센터 환경 및 행정팀 직원 만족도 (2.0만점)



■ 센터환경 1.3
 ■ 행정팀 직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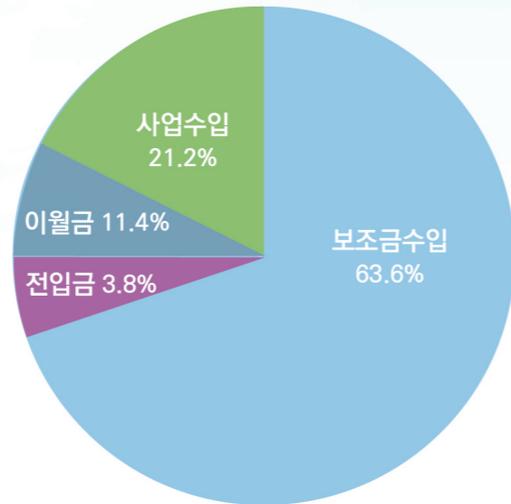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센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상반기 운영 결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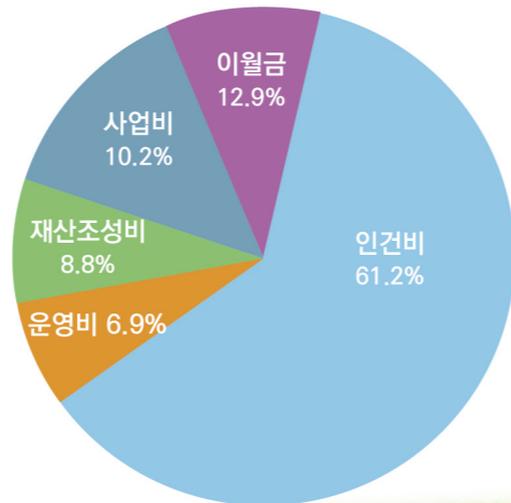
세 입

구 분	계 (단위 : 천원)	
사업수입	67,314	21.2%
보조금수입	201,700	63.6%
전입금	12,000	3.8%
공모후원사업	-	0.0%
이월금	36,060	11.4%
잡수입	23	0.0%
세입계	317,097	



세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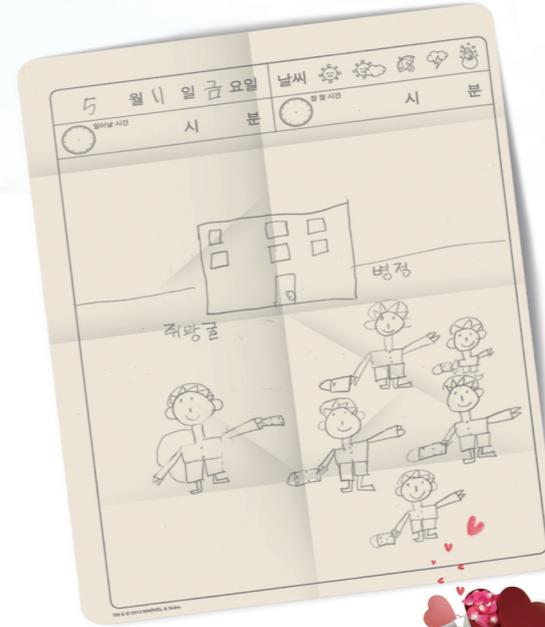
구 분	계 (단위 : 천원)	
인건비	194,048	61.2%
운영비	21,905	6.9%
재산조성비	27,980	8.8%
사업비	32,293	10.2%
후원공모사업비	-	0.0%
잡지출	-	0.0%
반환금	14	0.0%
이월금	40,857	12.9%
세출계	317,097	



'꿈에 그린 도서관'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꿈에 그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이용 시 에피소드나, 책을 읽고 느낀 점등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성증진반
박세영 아동입니다^^

성교육 관련 도서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 친구들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 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오시는 길



5호선 오금역 6번 출구 3314, 3315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개롱역 3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3317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